

에는 完好한 半圓形에 가까운 鈕를 갖추고 있는 點 등 中國에 있어서의 六朝代 鏡體와 같은 물건이다. 그 全面은 모두 灰綠色을 보이는 所謂 水中古의 色澤이어서 원래 濕地에 埋藏되어 있었음을 그 自體가 보여 주고 있다.

이 鏡의 背紋은 鈕를 中房으로 삼아서 넓은 內區에 크게 蓮葉紋을 突線으로 表現하고 一段 높은 곳, 所謂 外區에 波狀草紋을 配한 것으로서 插入된 拓影과 같은 것이며 이것이 鏡文으로서의 特色을 보이고 있다. 즉 主文을 이루고 있는 蓮華紋은 先端이 卽 죽한 八葉의 瓣脈이 있는 것으로서 瓣間에는 이 卽 죽한 연판 끝을 鉸친 式인데 그

것은 高句麗나 百濟의 壁畫에 그려진 蓮華와 相似되어 있으며 또 古新羅의 一金銅幣을 장식한 蓮華紋과 같은 型에 屬하는 것이다. 그리고 外區의 波狀草紋도 古漢鏡에 있어서의 外區紋인 所謂 流雲紋이나 草渦紋의 系統을 받은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點으로써 이 鏡이 中國에 있어서의 六朝後半期의 銅鏡이라는 것을 그 自體로써 인정할 수 있다.

右 鏡이 보여 주는 것과 같은 中國에 있어서의 六朝後半의 古鏡遺存例는 現在 더욱 遺品이 희귀하다. 따라서 이것이 鑄造된 곳에 對해서 鏡을 出土地域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것을 後漢代로부터 鏡의 仿製가 盛行했던 日本에 있어서의 仿製鏡의 實相——그 六朝中期의 遺品은 慶州의 金鈴塚에서 出土되었다——에 비교해 보면 오히려 當時의 中國으로부터 온 舶載鏡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한 點으로 歷史의 興味를 한층 도꾸어 준다.

成化三年銘 司饗院銅印

崔 淳 雨

一 司饗院은 當初 司饗房이란 이름으로 李太祖 元年에 高麗의 舊制를 이어 創設했던 宮中官署의 하나였다. 經國大典에 「司饗院掌供御膳及 闕內供饋等事」云이라 밝힌 바와같이 이 官廳은 王의 御膳을 비롯하여 宮中의 厨房을 맡은 機關으로서 그 責任의 重大性에 비추어 그 長인 都提調는 王子 또는 大臣級으로 補하는 것이 常例였다. 이 司饗院은 御膳을 비롯한 御厨百事に 必要한 食器類를 自體가 調達해야 되었으며 따라서 國初以來로 鑄造官을 두어서 御用沙器그릇을 監造하고 있었다. 이러한 事實은 大典會通 六典條例에도 밝혀져 있지만 이러한 使命으로 因하여 結果적으로 이 司饗院은 李朝陶磁器發達의 溫床으로서 李朝陶藝界의 中樞의 役割을 다했던 것임을 알 수 있고 國內의 地方官窯는 말할 것도 없고 民窯에 이르기까지 그 器皿制式이나 窯技指導의 總本山格인 구실을 다해왔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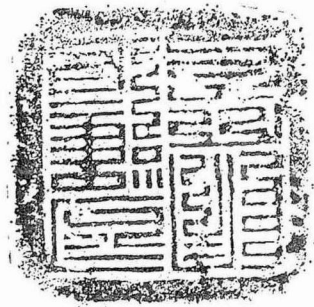
다. 司饗院이 監造한 沙器 그릇은 우선 長興庫에 納庫한 후 宮中各殿의 常用과 儀禮時에 必要한 量이 出給되었는데 司饗院은 이러한 高級沙器를 굵기 爲하여 「每歲司饗院官率畫員監造御用之器」(東國輿地勝覽 京畿道 廣州土產條)했던 것이다. 이러한 記錄으로써 보면 李朝時代의 靑華 鐵砂 辰砂 等 畫沙器에 나타난 非凡한 그림은 當時의 圖畫署 畫員의 作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陶磁器 裝飾畫에 이러한 畫家들이 動員될 수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司饗院의 威光에 緣由하는 것이었다.

二

언제부터였는지 자세한 기록은 남아 있는 것이 없지만 中宗朝의 朴祥의 文集속에 分院이란 語句가 보이는 것이 있고 古來로 京畿道 廣州郡의 古窯를 分院가 마라고 불려오게 되었는데 이 分院이란 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司饗院의 分院이란 뜻이며 이것은 後의 기록에 나오는 分院、分厨院(俗稱)이란 이름으로 制度化되어 그 職制와 定員의 全貌가 밝혀져 있다. 어쨌든 이 司饗院이라는 宮中官署는 그 本來의 使命인 宮中の 厨房을 擔當했던 機關으로서 보다 李朝陶藝의 進運에 크게 寄與한 功績으로써 보다 더 社會的인 聲名이 높아진 것이 事實이다.

三

이번 서울 金文基氏의 好意로 그 분이 所藏한 成化三年在銘 司饗院印을 調査하게 된 것은 望外의 기쁨이었으며 이러한 意味로 이것은 同學들이나 愛陶家들에게 매우 솔깃한 소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銅印은 一邊이 約七·二cm로 된 모 죽임을 한 方角形이며 全高는 六·三cm 印身의 두께는 一·三cm — 一·一cm 鈕의 높이는 四·八cm 鈕의 넓이는 鈕底에서 三·三cm 鈕의 두께는 一·一cm 內外로 되어 있고 이 鈕는 印身위에 二mm 높이를 들우어진 方角鈕座위에 印行에 따라 세로 直立되어 있다(이 鈕는 上端에서 一cm의 部位에서 鐵톱으로 斷切되어 있는

데 이것은 原發見者가 金인가를 알기 爲해서 故意로 잘랐다 한다)。印面에는 大篆으로 司饗院印의 四字를 陽鑄했으며 鈕座左右변두리에는 세로 陰刻된 다음과 같은 銘文이 있다. 즉 右側에는 「司饗院印」左側에는 「成化三年 四月 日造」라 되어 있다. 이 成化三年 四月은 바로 世祖實錄卷四二世祖十三年四月己亥條에 나오는 「改司饗院始置祿官」이란 대목에 該當하는 날짜로부터 司饗房이라 부르던 것을 司饗院으로 改稱함에 따라 이 銅印은 그때 새로 鑄造했음을 밝혀주고 있다. 다만 이 銅印은當初 發見者의 손에서 轉轉해서 現所藏者에게 入手된 것이었음으로 그 出土地를 밝힐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司饗房이란 이름이 實錄에 비로소 보이는 곳은 太宗實錄 卷九 太宗五年 乙酉三月 禮曹詳定分職條속에 나타나 있다.

楊平 婆娑山 磨崖如來立像

鄭 永 鎬

京畿道 楊平郡 介軍面 上柴浦里 「새터」마을에서 東南쪽으로 約二km되는 岫岳은 山周圍에 石城이 보이며 이 산이 婆娑山이고 여기에 쌓은 城을 婆娑城이라 稱한다. 婆娑城에 對하여는 이미 調査되어 報告書가 있고 또 다른 記錄도 있으나(註) 바로 隣接한 이 佛像에 關하여는 전혀 알려진 바 없기에 簡單히 紹介하려 한다.

「새터」마을에서 約一·五km 婆娑山의 北麓溪流를 따라 올라가면 左側으로 婆娑山보다 낮은 山이 있고 山峰가까이 巨大한 岩壁이 屏風처럼 둘러 있어서 마을사람들은 병풍바위라고 일컫고 있는데 佛像은 南壁面中央에 位置하였다. 浮彫가 아니고 線刻이며 下部磨損 때문에 完形을 볼 수 없음은 遺憾된 일이다. 如來像으로 素髮의 頭頂에는 큼직한 肉髻가 있고 白毫孔은 없다. 兩眉와 眼耳 鼻樑等 整齊되고 口唇에 若干의 微笑가 어려서 圓滿한 相好에 慈悲가 흐른다. 法衣는 右肩偏袒으로 兩脚에서